

2024. 8. 29.(목)

고객 지원 팀

2024년 안산기업 추석휴무·환율변동 실태조사

목 차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I. 조사 개요 | | 2 |
| II. 조사 결과 | | 3 |
| 1. 추석 명절 휴무 계획 | | 3 |
| 2.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 | | 4 |
| 3. 환율 변동 영향력 조사 | | 6 |

I 조사 개요

□ 조사 목적

- 안산기업의 추석 명절 휴무계획과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력을 조사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및 개별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

□ 분석 대상

- 안산지역 소재 기업

□ 조사 기간

- 2024년 8월 14일(수) ~ 8월 23일(금), 10일간

□ 조사 방법

- 온라인 조사

□ 조사 내용

- 추석 명절 휴무 계획
- 상여금 지급 계획
- 환율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요인
- 환율변동에 대비한 대응 전략

□ 응답 현황

| 구 분 | | 응 답 수 | 응답비율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기업 규모 | 50인 미만 | 120개사 | 60.0% |
| | 50인 이상 ~ 100인 미만 | 38개사 | 19.0% |
| | 100인 이상 | 42개사 | 21.0% |
| 합 계 | | 200개사 | 100.0% |

II 조사 결과

1. 추석 명절 휴무 계획

□ 추석 명절 휴무기간

○ 안산기업의 평균 추석 명절 휴무기간은 5.1일로 나타남.

* 추석 명절 기간: 2024. 9. 14.(토) ~ 9. 18.(수), 5일(토·일요일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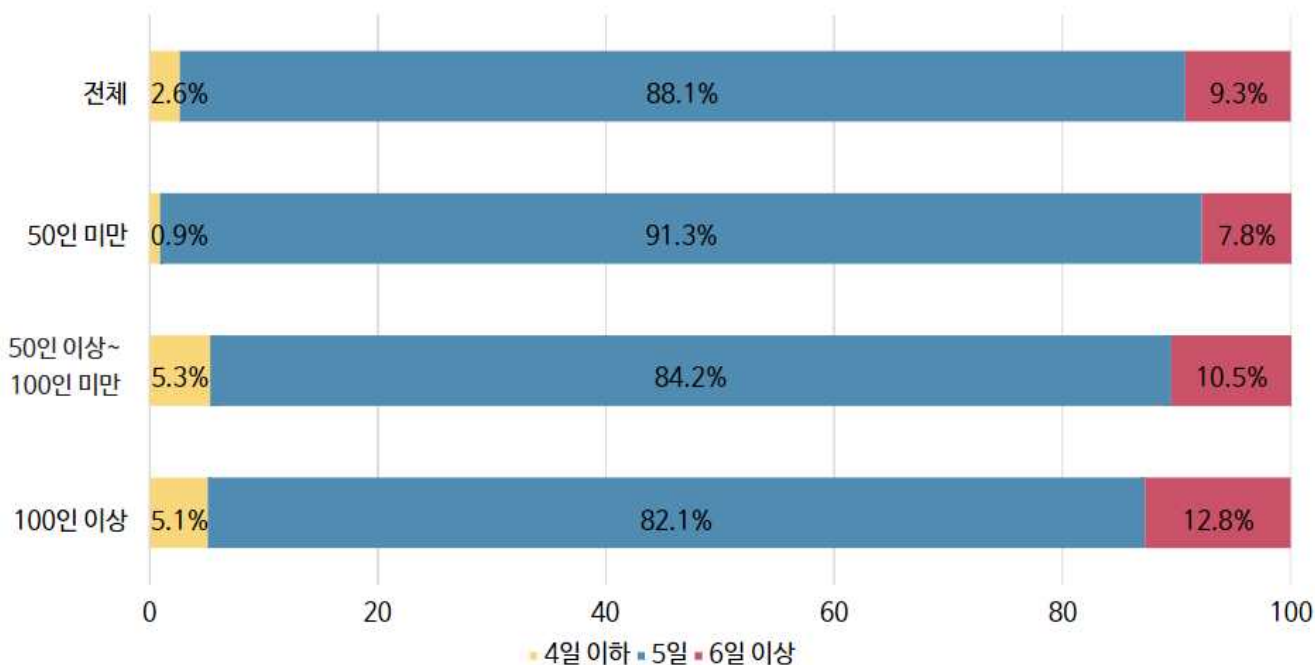
○ 안산기업의 88.1%가 추석 명절 휴무기간을 5일로 계획한다고 응답함.

- 4일 이하 휴무를 계획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.6%로 나타남.
- 6일 이상 휴무를 계획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9.3%로 나타남.

기업 규모별 추석 명절 휴무기간

| 구 분 | 4일 이하 | 5일 | 6일 이상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 체 | 2.6% | 88.1% | 9.3% |
| 50인 미만 | 0.9% | 91.3% | 7.8% |
| 50인 이상 ~ 100인 미만 | 5.3% | 84.2% | 10.5% |
| 100인 이상 | 5.1% | 82.1% | 12.8% |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

2.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

□ 추석 상여금 지급 형태

- 안산기업 중 추석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은 87.5%로 전년 대비 0.9%p 증가함. (미지급 7.5%, 지급 계획 미정 5.0%)
- 상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하는 기업은 31.5%로 전년 대비 5.5%p 증가, 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은 10.5%로 전년 대비 3.5%p 감소, 선물만 지급하는 기업은 45.5%로 전년 대비 1.2%p 감소함.
- 정기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27.5%, 특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13.5%,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 모두 지급 예정인 기업은 1.0%로 나타남.

안산기업 추석 상여금 및 선물 지급 형태 (통합)

| 대분류 | 비율 | 중분류 | 비율 | 세분류 | 비율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지급 | 87.5% (0.9%p▲) | 상여금+선물 모두 지급 | 31.5% (5.5%p▲) | 정기+특별 상여금 | 1.0% (1.0%p▲) |
| | | 상여금만 지급 (선물 미정 1.0% 포함) | 10.5% (3.5%p▼) | 정기 상여금 | 27.5% (2.8%p▲) |
| | | 선물만 지급 (상여금 미정 12.0% 포함) | 45.5% (1.2%p▼) | 특별 상여금 | 13.5% (1.8%p▼) |
| 미지급 | 7.5% (3.5%p▲) | | | | |
| 미정 | 5.0% (4.4%p▼) | | | | |

※ 괄호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.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- 안산지역 소재 기업 중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42.5%로 나타남.
 - 미지급 사유로는 ‘지급 규정 없음(38.8%)’ 이 가장 많았으며, 그 외 응답은 ‘선물 등으로 대체(25.9%)’, ‘연봉에 포함(18.8%)’, ‘재무상태 악화(16.5%)’ 순
- 추석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(77.0%)의 지급 수준은 평균 83,344원으로 나타남
 - * 상여금 중복 지급 기업(63개사) 포함

안산기업 추석 상여금 및 선물 지급 형태

| 상여금 유무 | 비율 | 선물 유무 | 비율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상여금 지급 | 84개사 (42.0%) | 선물 지급 | 63개사 (31.5%) |
| | | 선물 미지급 | 19개사 (9.5%) |
| | | 선물 미정 | 2개사 (1.0%) |
| 상여금 미지급 | 85개사 (42.5%) | 선물 지급 | 67개사 (33.5%) |
| | | 선물 미지급 | 15개사 (7.5%) |
| | | 선물 미정 | 3개사 (1.5%) |
| 상여금 미정 | 31개사 (15.5%) | 선물 지급 | 24개사 (12.0%) |
| | | 선물 미지급 | - |
| | | 선물 미정 | 7개사 (3.5%) |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추석 상여금 지급 수준

-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의 지급 수준으로는 ‘작년과 동일한 수준(86.9%)’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.
 - 작년보다 ‘많이’ 지급 예정인 기업 8.3%, 작년보다 ‘적게’ 지급 예정인 기업 4.8%
-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의 48.8%가 추석 특별상여금을 ‘기본급의 50% 미만’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.
 - ‘일정금액’의 경우 지급 수준은 평균 450,000원

안산기업 추석 상여금 지급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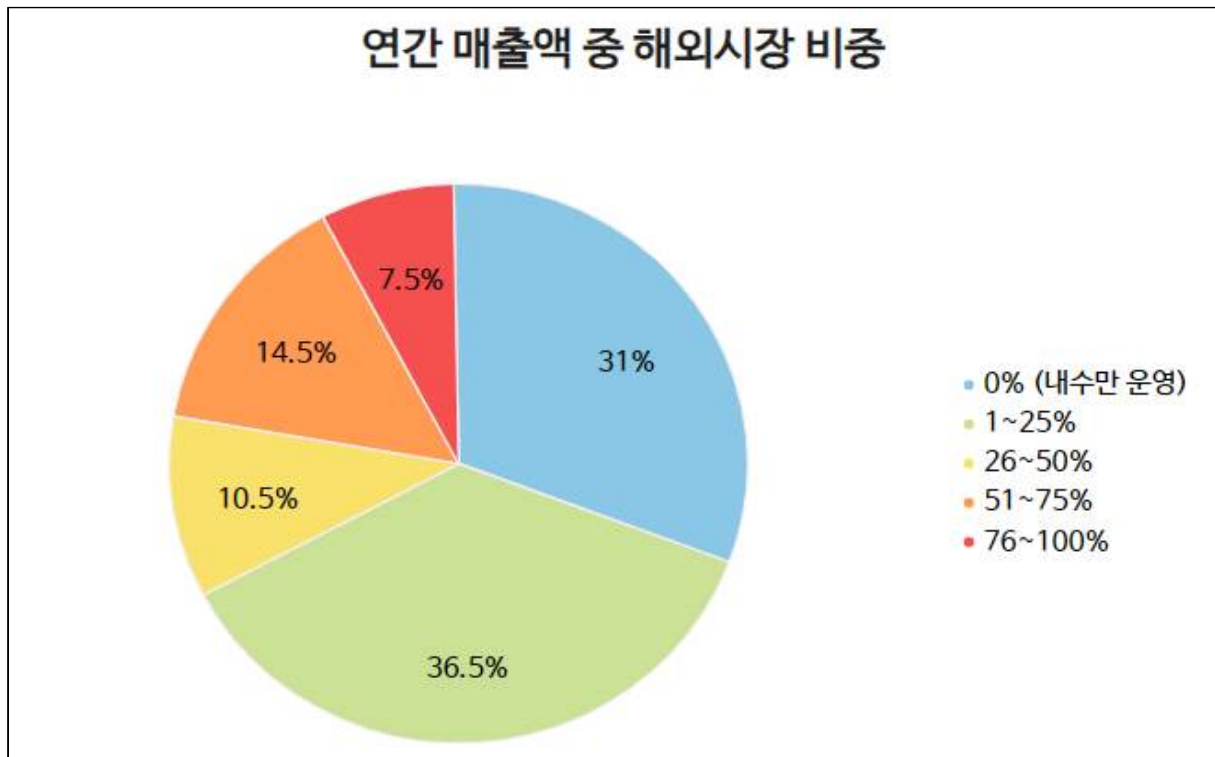
| 기본급의 50% 미만 | 기본급의 50% 이상 | 기본급의 100% 이상 | 일정금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48.8% | 17.9% | 19.0% | 14.3% |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3. 환율 변동 영향력 조사

□ 수출 현황

- 귀사의 연간 매출액 중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?
 - 연간 매출액에서 해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~25%가 36.5%로 가장 많았으며 ‘내수만 운영(31%)’, ‘51~75%(14.5%)’, ‘26~50%(10.5%)’, ‘76~100%(7.5%)’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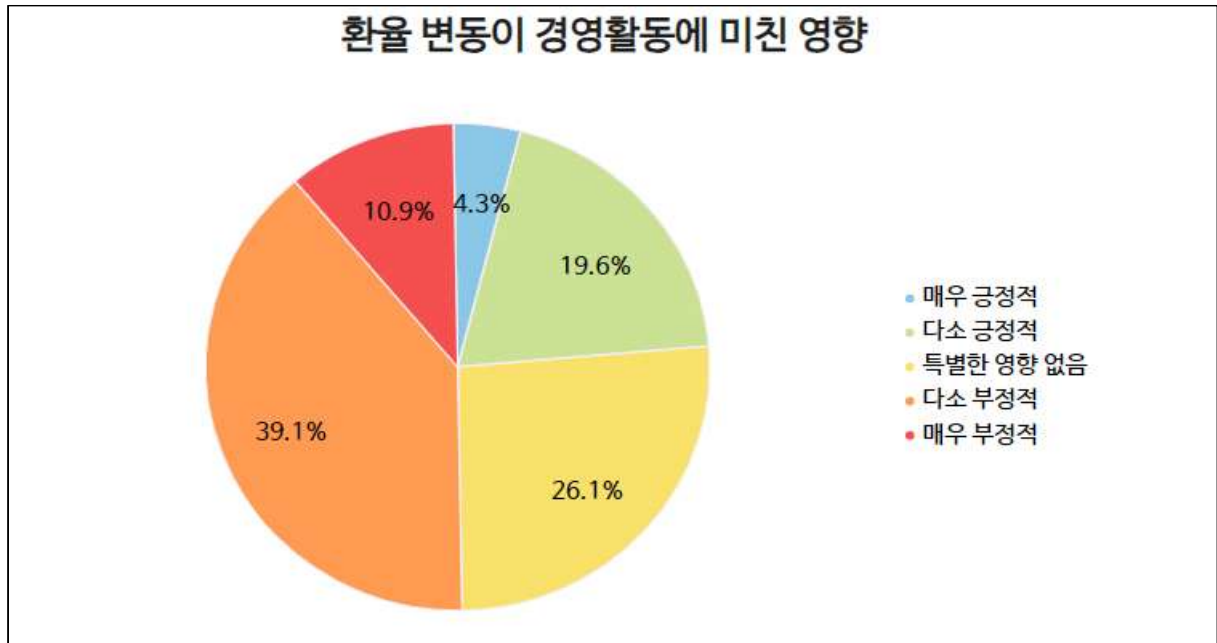


- 귀사의 주요 거래 통화는 무엇입니까? (복수 응답)
 - ‘USD 달러’ 거래가 128개사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EUR 유로(19개사)’, ‘JPY 엔화(17개사)’, ‘CNY 위안(11개사)’, ‘VND 동(1개사)’ 순으로 응답

□ 환율 변동의 영향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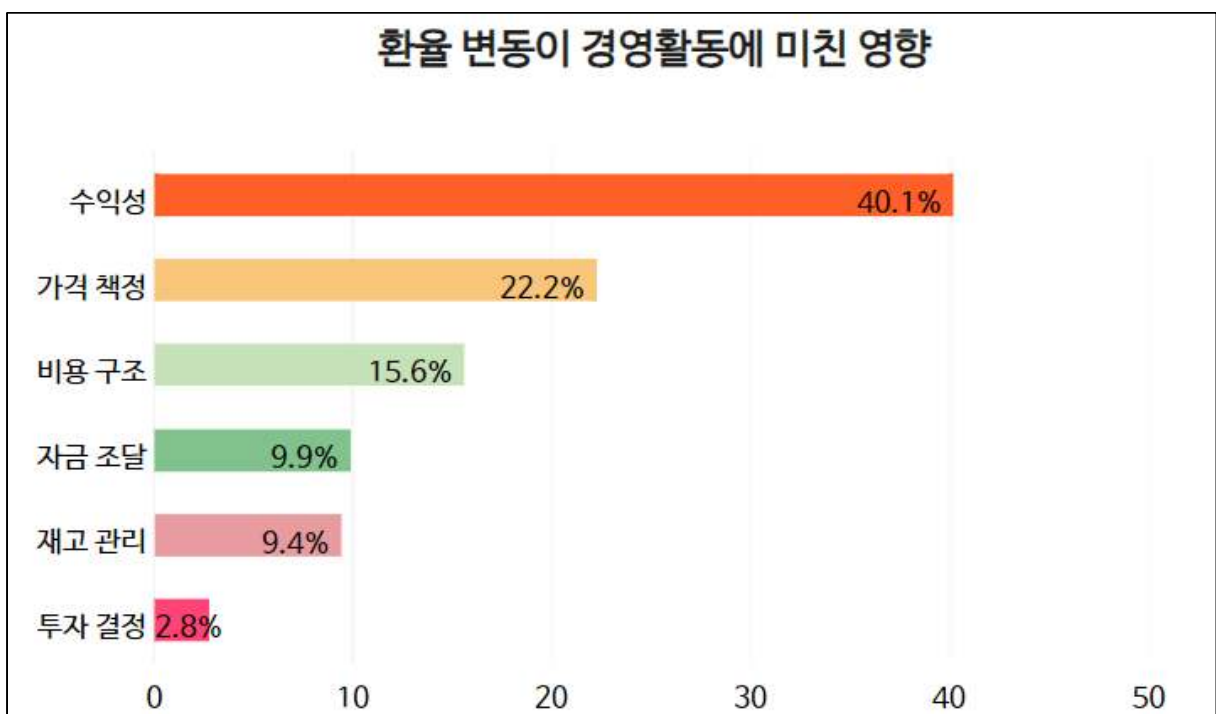
○ 지난 1년 동안 원·달러 환율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, 환율 변동이 귀사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- 긍정 응답 23.9%: ‘매우 긍정적(4.3%)’, ‘다소 긍정적(19.6%)’
- 부정 응답 50.0%: ‘다소 부정적(39.1%)’, ‘매우 부정적(10.9%)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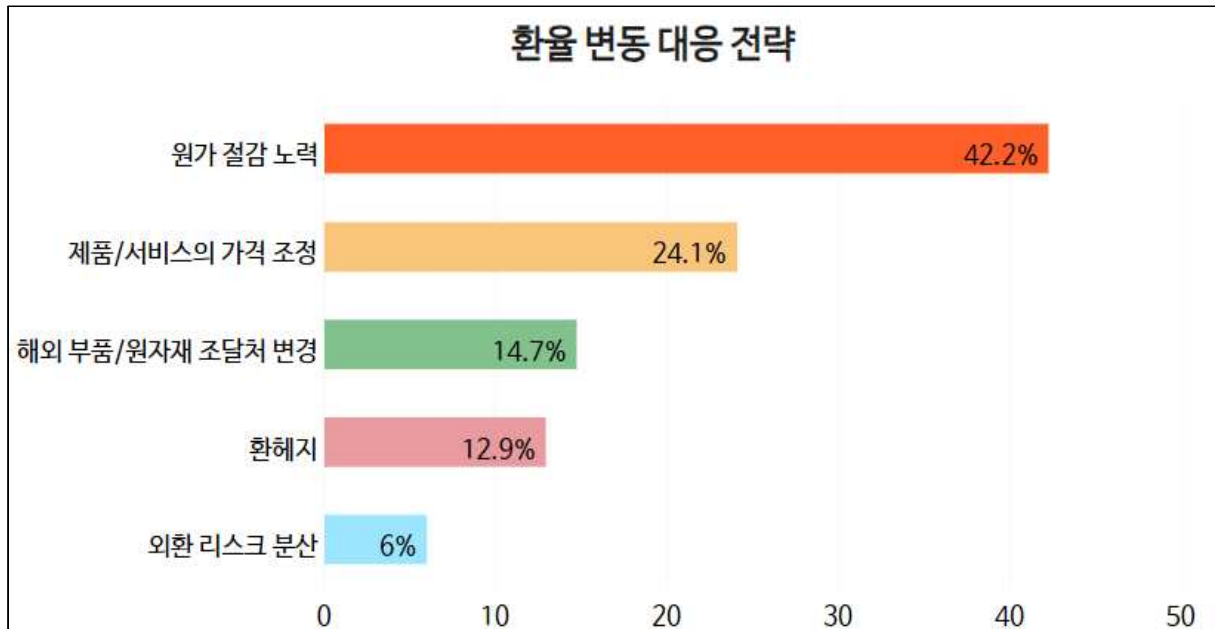
○ 다음 항목 중,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요인은 무엇입니까? (복수 응답)

- 응답기업의 40.1%가 ‘수익성’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가격 책정(22.2%)’, ‘비용 구조(15.6%)’, ‘자금 조달(9.9%)’, ‘재고 관리(9.4%)’, ‘투자 결정(2.8%)’ 순으로 응답



□ 대응 전략

- 귀사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 어떤 대응 전략을 사용·계획하고 있으십니까? (복수 응답)
- 응답기업의 42.2%가 ‘원가 절감 노력’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제품/서비스의 가격 조정(24.1%)’, ‘해외 부품/원자재 조달처 변경(14.7%)’, ‘환헤지(12.9%)’, ‘외환 리스크 분산(6%)’ 순으로 응답



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고객지원팀 【T. 031-410-3030(#244)】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- 발행인: 권혁석
-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- 발행일: 2024. 08. 29.

[비매품]